

1

아파트 보안 마케팅 강화 시큐리티 아파트가 뜬다

최근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시큐리티 바람이 불고 있다. 출동 경비 시스템뿐 아니라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한 보안 서비스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차별화된 경비 시스템을 선보이며 첨단 아파트로 진화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보았다.

에디터 | 최보윤 · 사진 · 자료 제공 | 동부건설, GS건설, SK건설

최 근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시큐리티 바람이 불고 있다. 맞벌이 가정과 여성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주택 업계도 차별화된 경비 시스템으로 첨단 아파트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보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최근 '진접 동부센트레빌'을 분양하면서 자체 개발한 방법 로봇인 '센트리'를 업계 최초로 도입해 아파트 보안 시스템을 차별화했다. 키 4m의 이 로봇은 아파트 단지 오픈터 8곳에 배치돼 정지한 상태에서 반경 50m 범위를 360도 회전하면서 침입자를 감시한다. 적외선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돼 야간에도 침입자를 발견하면 경고음을 낸다. 로봇이 탐지한 상황은 민간 경비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침입자가 감지되면 경비 업체 직원이 즉각 출동한다. 동부건설은 이 로봇과 관련된 기술을 최근 특허로 인정받았다.

GS건설은 '출동 경비 시스템'과 '자이 마스터키 시스템'을 선보였다. 출동 경비 시스템은 전문 경비 업체 직원이 종합 관제실에



1 맞벌이 가정과 여성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체들이 보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2 용인 동천 래미안에서 선보인 삼성물산의 '원 패스 시스템' 원패스라는 작은 키홀더에는 공동현관이나 세대 현관 출입 인증 기능뿐 아니라 무선 비상 호출 등의 기능이 통합 돼 있다.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무선 비상 호출 기능은 사용자가 단지 내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관리실과 해당 세대의 월 패드로 정보가 전달되고, 호출자의 위치 추적 기능이 가동된다. 3·4 보안 마케팅은 입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 단지 내 어디서나 비상 호출, 위치 전송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동 현관 출입 통제와 주차 통제까지 할 수 있는 '자이 마스터키'. 6 적외선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돼 야간에도 침입자를 발견하면 경고음을 내는 동부건설의 자체 개발 방법 로봇 '센트리'.



상주하면서 단지 내 각 가정은 물론 취약 지역 방법과 외곽 감시를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부산 동래구 '사직 자이' 아파트는 국내 대형 보안 업체인 KT텔레캅과 출동 경비 계약을 맺고 입주 초기 자주 발생하는 안전 및 도난 사고에 대비했다. 계약 기간은 1년이지만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계약을 연장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출동 경비 시스템뿐 아니라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자이 마스터 키 시스템'도 도입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자이 마스터 키를 이용해 단지 내 어디서나 비상 호출, 위치 전송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동 현관 출입 통제와 주차 통제까지 할 수 있다. 자이 마스터 키는 현관 열쇠와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마스터 키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다기능 통합 열쇠의 역할을 한다. 또한 뛰어난 디자인을 인정받아 2006년 하반기 우수산업디자인으로 선정되어 굿 디자인 마크도 획득했다.

SK건설은 SK텔레콤과 손잡고 새로운 홈 네트워크 서비스인 'D.home'을 출시했다. D.home은 무선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홈 네트워크 서비스로 신축된 아파트의 전유물이었던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존 아파트와 주택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D.home은 휴대폰을 이용해 집 밖에서도 침입, 화재, 가스 누출 감지 장치를 작동시키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문자 및 음성 메시지로 이를 통보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고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처럼 건설 업체별로 입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색의 첨단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파트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놀라기에는 이른다. 앞으로는 신도시 차원에서 첨단 방법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올해 말부터 선보일 'U-방범 시스템'이 그것이다. 첨단 감시 장비가 범 죄 화면, 비명 소리 등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또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전자 태그(RFID)를 부착한 카드를 나눠줘 대상자들의 위치 정보와 동선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다. 업계는 안전한 주거 생활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만큼 입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새로운 보안 마케팅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